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믿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1독서 : 민수 6,22-27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 : 루카 2,16-21

가톨릭 성가

입당 : 258

봉헌 : 105

성체 : 106

파견 : 238

◎ 화답송



(후렴)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 - 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 - 서.

◎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 영성체송. ○ 예수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호수를 건너는 성모 마리아 (Giovanni Segantini, 1858-1899) 조반니 세간티니 작
세간티니 미술관, 스위스 생모리츠

연미사	봉헌
윤항구 알렉산더	문안나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양미숙마리아
김규동 안토니오	김윤수 미리암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김철영 미카엘	가족
박정남 헬레나, 최기영 바오로	남지혜 크리스티나
이성규 안드레아, 김용주 레지나	이브레아카, 강토마스
생미사	
양미숙 마리아 성가정 위해	이지연 안나레지나
양미숙 마리아 성가정 위해	양미숙 마리아
오정민 세례자 요한 가정	익명
정다경 마리아 축일	희망의모후
정다경 마리아	남지혜 크리스티나
김지원 돌나, 김홍섭 루크	가족
박정순, 남금천, 최승현	남지혜 크리스티나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유정옥 유스티나

☛ 〈성화〉 호수를 건너는 성모 마리아

아기를 안은 성모님께서는 나룻배를 빌려 양 떼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구원의 장소로 가십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모든 교우분들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평화로운 호수를 건너듯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01/01	백이백	민완준	민덕미	민덕미	이지연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김실비아 이우스티나 조바실리오
01/05	김유화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유정옥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혼란을 안겨 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촉발된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과 평화로운 연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도 이러한 희망으로 굳건해지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희망의 가능성이 더욱 꽃을 피워,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해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희망으로 2025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희년으로 선포한 해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번 희년의 주제를 ‘희망’으로 정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 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되새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해입니다. ‘희망’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사랑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어둠과 지친 세상을 향해!!!